【1】月刊 登錄番號라－137號 1988.11.9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2년 2월 1일 제167호

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兼編輯人 崔主鎬
印刷人 崔瑞泳
發行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號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電話：702－2233～5. 717－8536～7.
FAX：703－0755.
銀行지로番號：7500875
對替口座：010017－31－0621565

봄을 부르는 同門의 그림과 彫刻

개나리 필때

개나리는 노란꽃이 잎보다 앞서 피어 봄을 제일 먼저 알려준다. 곤지암 부근 한 마을의 봄기운이 도는 정경
〈陳眞淑동문作·66년 美大卒·漢陽大 교수〉

來日을 向하여－Ⅱ

밝은 太陽, 삼천리 금수강산, 무궁화 꽃 등을 소재로 새봄과 함께 나라의 희망찬 來日을 기약하는 像.
〈張潤宇동문作·62년 美大卒·誠信女大교수〉

冠岳春秋

그래도 希望을 갖자

새해에 들어서면서 올해를 밝게 展望하기 보다는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의 수효가 많다. 백억달러가 넘던 貿易收支黑字가 하루 아침에 백억달러의 赤字로 곤두박질하였고 올해 赤字는 그 보다 더 클 것이라고 專門家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輸出에 의존하여 經濟成長을 유지하여온 우리의 經濟體質로 보아, 근래에 더 두터워지고 또 높아만 가는 先進國들의 技術保護장벽, 날이 갈 수록 더 거세어지는 貿易開放壓力, 거기에 더하여 경쟁력을 잃은 製造業의 실상등 우리나라 經濟與件이 결코 탄탄치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總選擧, 大選등 굵직한 선거를 여러번 치루어야 하며 그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選擧費用을 감안하고 그같이 풀려나온 資金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뛰어오를 物價등을 예상하면서 올해를 매우 어둡게 점치고 있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蘇연방의 붕괴 후 엉성하게 출범한 獨立聯邦國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러시아 및 東歐圈의 政治·社會·經濟的 혼란이 결코 우리나라 經濟成長에 이로울 수 없고 더욱이 美國의 近年에 없는 尤甚한 景氣不況이 우리의 經濟成長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서 우리의 형편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물론 南北관계의 展開方向에 따라서도 우리의 經濟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이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불투명할 때 더욱 염려되는 것은 선거때마다 격어야 할 過熱된 선거풍토다. 이로 인하여 야기될 階層間, 地域間, 그리고 國論의 분열등 지극히 非生産的인 여러 갈등이 必至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國內外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으나 우리는 결코 悲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까닭은 이렇다. 첫째 우리는 지난 5천년 동안 外侵등 숱한 苦難을 겪어오면서도 우리 文化와 傳統을 지켜온 슬기로운 민족이고, 둘째 日帝의 壓政에서 高等敎育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어서 고급人力이 殆無였고 더욱이 6·25를 겪으면서 敎育施設이나 人材를 크게 잃는등 世界에서 最貧國이요, 거의 荒無地와 같았던 나라가 共和國이 바뀔 때마다 겪은 政治·社會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貿易量으로 보나 技術水準으로 보나 先進國의 문턱에 이를 단계까지 나라를 建設해 낸 민족이며, 셋째 한동안 경제의 후퇴에도 아랑곳없이 過消費, 사치성생활, 나태현상등 부정적 作態가 우심하였으나 오늘 이 時點에서 自己省察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특히 국민 모두가 오늘을 難局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이에 대응할 底力을 再現할 수 있는 民族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 분명히 우리에게 希望을 갖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나라에 「서울大學校」가 建在하다는 점이다. 서울大學校는 전국 방방곡곡의 준재들을 모아 卓越한 敎授들에 의하여 中堅 棟樑을 길러내는 우리나라 最先鋒의 大學이고 이곳에서 배출된 동문들은 建國이래 政界에서 官界에서, 學界에서, 言論界에서, 法曹界에서 그리고 産業界에서 나라의 運命을 좌지우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各界에서 中樞的 기능을 다 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의 判斷에 따라 나라의 發展樣相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막대한 影響力을 지닌 우리 동문들이 社會淨化에 앞장 설 때 나라의 秩序는 쉽게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올해 치루어야 할 選擧를 돈 안 쓰고 公明하게 치룰 수 있는가는 우리들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이다. 더욱이 政治的 獻身을 바라고 있는 우리 同門들이 公正하고 깨끗한 選擧運動을 펴 나갈 때 民主主義의 기반은 더 단단해지고 나라의 運勢는 크게 뻗어나가게 되리라고 본다.

나라의 앞날을 責任져온 同門들이기 때문에, 또한 자칫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를 나라를 오로지 救國一念으로 再建할 수 있는 슬기로움을 우리 同門들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國民들은 결코 希望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印尼서도 서울大人 結束과시

家政大 임원진 새로 構成

農大→農生大로 名稱변경 異見

濟州에서 들려오는 성급한 봄소식과 함께 올해 사업을 설계하는 單大 및 科동창회·地方支部 정기총회가 막이 올랐다.

지난 1월8일 農大 동창회를 시발로 10일에는 忠南지부가, 그리고 17일에는 家政大 총회가 열리는 등 크고 작은 科·期동창회 행사도 잇따랐다. 또 멀리 인도네시아에서도 서울大人의 유대와 결속을 다지는 모임이 있었다.

▲農科大學同窓會(회장 沈鍾燮)는 지난 1월 8일 오후3시 호암교수회관에서 9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崔主鎬회장·金鍾云총장을 비롯한 동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新年交禮를 겸해 열린 이날 모임에서 沈회장은 『지난 총회때 약속했던 명부제작등 제반 會務가 동문들의 협조속에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후 『올해는 주요 기관별·지역별로 책임간사제를 도입하여 보다 원활한 동창회운영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祝辭에 나선 崔主鎬회장은 『세계가 첨단과학을 앞세운 경제전쟁에 들어선 만큼 2천년대 한국농업의 방향설정은 서울大에게 부과된 과제』라며 『농업과학을 주도하는 모교를 위해 92년도에는 더욱 일치단결하는 동창회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장촉사·회무보고를 마치고 진행된 토의순서에서는 會名을 바꾼 모교 명칭에 따라 「農業生命科學大學同窓會」로 개칭할 것인가, 기존의 「농과대학동창회」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장단에서 추후 매듭짓기로한 가운데 이날 행사를 마쳤다.

▲家政大同窓會(회장 徐炳淑)는 지난 1월17일 12시 뉴월드호텔 무궁화홀에서 9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임회원환영회를 겸해 열린 이날 총회는 2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는데, 회장인사에 이어 예·결산안심의 및 감사보고,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전달, 임원개선, 친교의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임원개선에서는 元暎玉동문(56년卒·국민대교수)이 새회장에 선출됐으며 都南姬동문(62년卒·도나미의상실대표)이 부회장에, 李元子동문(63년卒·건국대교수)이 총무에 선출됐다.

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전임회장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母校와 동창회 발전을 열망하는 동문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원개선에서는 각기별 이사에 대한 선임도 함께 있었다.

◇인도네시아支部 정기총회에서 駐在大使인 金在春 명예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大田·忠南支部(회장 吳熙弼)는 지난 1월10일 오후6시 大田中央觀光호텔에서 제22차 定期理事會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吳熙弼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동창회활동을 활발하게 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한후 『금년에는 회원친목 및 장학기금조성 그리고 동창회 목적에 수반되는 모든 일에 주력할 것이며 모교의 각종 行事에 적극 참여하고 후원하며 本部 동창회와의 紐帶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어 崔主鎬회장을 대리하여 曺奭사무처장은 본부 동창회의 현황과 올해의 사업계획 특히 崔회장이 新年辭에서 밝힌 科學硏究基金 1백억 조성에 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대해 大田·忠南지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사회는 이어 지난해의 決算을 이의없이 승인하고 올해의 사업으로 회원친목·총회 및 등반대회 개최, 奬學金 및 동창회 기금조성 그리고 會員名簿를 작성 배포키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 3천8백11만여원을 확정했다.

▲인도네시아支部(회장 申明植)는 구랍 17일 자카르타힐튼호텔에서 91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동문과 가족등 1백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는 鄭武雄(64년 商大卒·KORINDO그룹 상무이사)부회장의 인사에 이어 경과보고·신임회원소개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임원선거에서는 申明植회장의 후임으로 高斗模(63년商大卒·味元현지법인 사장)동문을 선출했다.

신임 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이국땅에서도 모교와 동창회발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임 회장단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임기중에 각 단과대학·기별모임의 활성화에 주력하여 동창회 결속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격려사에 나선 金在春(56년 法大卒·駐인도네시아 대사)명예회장은 『이곳에서 서울대인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는 추세에 맞추어 서울대인들은 곧 韓人사회를 대표한다는 자세로써 모범적인 동창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공식일정을 마친후 가진 만찬과 경품추첨순서는 동문들이 협찬한 찬조금과 경품으로 풍성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날 인도네시아동창회가 자체 제작한 카렌다가 참석자 전원에게 골고루 전해졌는데, 동문들은 이역만리에서 모교에 대한 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單大·支部 총회 막올라

지난해 豫算 초과달성

총 7억4백만원…4천만원 增收

3월 定總에서의 決算보고를 앞두고 사무처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월금을 제외한 91년도의 동창회 총 수입은 7억4백73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6천20만원보다 약 4천4백53만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經常收入에서 회장단이 1천1백60만원 예산에 9백50만원(82%), 이사가 1억1천만원 예산에 9천1백23만원(83%)의 실적을 보였고, 단과대학(원) 동창회의 분담금인 常任理事 會費는 3백10만원 전액이 입금됐다.

一般會費부문에서는 1억6천만원 예산에 1억5천4백67만원(97%)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중 직장 및 지방 해외지부에서 납부한 금액은 7백89만원이다. 또 졸업생入會費가 5백50만원 예산에 3백36만원(66%)이 들어왔다.

한편 經常外收入에서는 會報광고료가 1억2천9백33만원(예산 1억2천만원)으로 1백8%, 會員名簿가 1억2천8백83만원(예산 1억2천만원)으로 1백7%, 受入利子가 1천만원 예산에 5천12만원이 들어왔다. 또 찬조금 수입도 1억2천만원 예산에 1억3천4백만원(1백12%)의 실적을 보였고, 기타 잡수입이 30만원이다.

지난해의 수입이 경상수입에서 부진을 보인반면 경상외수입에서 호조를 보였는데 이는 동창회보광고료와 동창회관 5층 冠岳홀에서의 예식수입등에서 큰 성과를 올린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大型 냉장고 기증

齒大 9·6會

齒大 9·6회(회장 金鍾煥)는 최근 모교 치대에 시가 1백50만원상당의 대형 냉장고 1대를 기증했다.

家政大 임원진 새로 構成

農大→農生大로 名稱변경 異見

新 同窓會長

가정대 元暎玉 회장

지난 1월17일 家政大同窓會長에 선출된 元暎玉동문은 『지금까지 우리 동창회가 활발한 활동을 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앞으로 모교의 건학이념과 접맥계승발전, 선후배간의 친목도모, 후배들의 지도육성과 모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32년 경북 금릉에서 출생한 元동문은 56년 母校 사범대 가정교육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민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객원교수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디자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선·후배간 親睦도모 母校 발전위해 最善

효율적인 동창회활동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동문들의 뜨거운 협조와 관심』이라고 강조한다.

새해 人事 나누며 힘찬 跳躍 다짐

新年交禮會 스케치

○… 壬申年 새아침, 同門들의 새해 人事를…○
○…나누는 모습이 훈훈하고 화기가 넘친다. …○
○…특히 올해의 모임들은 그저 인사나 나누고…○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한결같이 母校의…○
○…발전을 위해 뭔가 기여하자는 분위기가 넘…○
○…치고 있었다. 新年交禮會 잔치 이모저모…○
○…를 살펴본다. 〈편집자〉 …○

◇法大(上)와 文理大 정치학과(下) 신년하례회

▲法大同窓會(회장 琴燮鎬)는 지난 1월16일 오후6시 시내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각계원로 동문과 모교 은사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琴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날 우리 사회의 中核的 역할을 우리 法大人이 감당해 왔듯이 多難할 이 해에도 사회 각계 각층에서 法大동문의 찬연한 활약이 더욱 빛을 더하기를 기원』하였다.

이어 지난해 동창회를 빛낸 유공동문들에게는 축하패와 기념패를 증정하였고, 동창회와 협찬동문들이 마련한 푸짐한 기념품을 상호 교환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축하패와 기념패를 받은 동문은 다음과 같다.

◇축하패 △韓鳳洙(상공부장관) △金甲現(정무제2장관) △李相培(총무처장관)

◇기념패 △李炳守(두산기계사장·금탑산업훈장 서훈)

▲文理大政治學科同窓會(회장 具平會)는 지난 1월15일 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92년도 정기총회를 겸한 新年交禮會를 개최했다.

동문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서 具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치러지는 여러차례의 선거와 국가 중대사에 동문 여러분들의 건승과 올바른 기여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그동안 동창회 발전에 공헌해온 李根洙전회장과 朴東海·金二燦전부회장에게 감사패가 각각 수여되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한 강남준동문과 강길호동문에 대한 기념패 수여식이 있었는데, 이들의 연구논문 『텔레비전 폭력물이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 미국 NBC연구에 대한 2차적 연구』(강남준)·『협상에서의 체면전략: 강경이미지와 유연이미지 구축을 위한 메세지 전략의 유형화 및 그 타당도에 대한 연구』(강길호)의 요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新聞大學院동창회(회장 崔浩)는 새해를 맞아 지난 15일 저녁 6시30분 쌍용빌딩 18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년퇴임한 朴有鳳교수를 비롯한 모교 교수와 金太文전회장(쌍용그룹부사장)등 동문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이날 崔浩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동창회의 모태인 新聞硏究所가 1963년 발족한 이래 이제 30대 청년이 된만큼 신문대학원동창회가 앞으로 젊은이 답게 동문의 의지를 결집해 활기찬 사업과 행사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새해계획을 밝혔다.

朴有鳳교수는 『東崇洞 낙산에서 쌓은 우리 新聞大學院이 수많은 기라성같은 인재를 배출했다』고 회고하고 『이제는 원숙해진 신문대학원과 현재의 젊은 신문학과가 한데 어우러져 新聞學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교측을 대표하여 李相禧교수는 『30여 성상을 거치며 한국언론과 고락을 같이한 신문대학원 동창회가 우리나라의 新聞學 발전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그 후 모교 敎務處長·師大 의회장 △科總회장 △모교總長 △대학교육협의회장 △자연과학대학장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教育部 장관에 趙完圭 前 모교총장

◇趙完圭 동문

◇宋漢虎 동문

◇韓甲洙 동문

◇林東源 동문

◇李 進 동문

◇李判石 동문

平統사무총장 宋漢虎 企劃院차관 韓甲洙 統一院차관 林東源 環境處차관 李進 慶北지사 李判石

후기대 入試문제지 도난사건과 관련, 책임을 지고 물러난 尹亨燮교육부장관의 후임에 趙完圭(52년 文理大卒·前모교총장) 동문이 지난 1월22일 임명됐다.

신임 趙장관은 이번 후기대 시험연기사태에 대해 『어이없는 일이지만 현재의 대학입시 국가관리체제 아래서는 언제나 발생할 소지가 있었던 일』이라며 『하루 빨리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등 대학자율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趙신임장관 약력 △서울출신 64세 △52년 모교文理大卒 △모교專講·助敎授·副敎授·敎授 △자연과학대학장 △副總長 △유전공학학술협의회장 △모교總長 △대학교육협의회장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한편 정부는 지난 1월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장관급)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새로 기용된 동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에 宋漢虎(60년 文理大卒·前통일원차관) 동문, 경제기획원 차관에 韓甲洙(56년 文理大卒·前 환경처차관) 동문, 통일원 차관에 林東源(61년 文理大卒·前 외교안보연구원장) 동문, 환경처 차관에 李進(64년 文理大卒·前 국무총리비서실장) 동문이 각각 임명됐다. 또 경북지사에는 李判石(74년 環境大學院卒·前 내무부차관보) 동문이 임명됐다.

경원大 총장 徐明源

경원대 총장에 徐明源 동문이 지난 1월8일 선임됐다.

◇徐明源 동문

신임 徐총장은 46년 모교 前身인 京城大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美조지피바디교육대학원에서 敎育學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모교 敎務處長·師大학장·副總長등을 지냈다.

徐동문은 이후 淑大·忠南大 총장, 문교부장관을 역임했으며 한국학원총연합회장및 단국대교육대학원 객원교수로 재직했다.

금년總會 3월28일(土)

午後 2時 힐튼호텔 컨벤션센타

동창회 1992년도 定期總會가 오는 3월 28일(土) 오후 2시 힐튼호텔 1층 컨벤션센타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만료된 任員의 선임과 91년도 決算承認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創立기간 日淺하나 활동은 第一 全北

8백여 同門 地域발전 위해 헌신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全羅北道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역사속에서 항상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해온 곳으로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을 때 王都로 삼았던 곳이며, 또 李氏朝鮮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또한 全羅北道는 재래의 맛과 멋을 간직한 고장으로 全北을 말할 때면 으레 全州의 합죽선과 비빔밥, 추향전의 무대인 南原의 광한루를 떠올리게 된다. 느릿한 사투리만큼이나 인심이 후한 곳, 이 全北에 동창회전북지부가 결성되어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本報에서 발방에 나섰다. 이러한 지방지부발방은 本部 동창회와 각지부간의 유대를 넓히고 또 더욱 활발한 동창회활동을 위한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창회 全北지부가 결성된 것은 지난 90년 4월이다. 그동안 전북도내에는 8백여명으로 추산되는 동문들이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의 역군으로 자연스럽게 추대 회장으로 취임했고 5명으로 부회장단과 각단과대학별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마지막 다섯번째 행사로는 동문음악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그외 장학금과 기타목적사업수행을 위해 기금조성위원회를 두고 1억 5천만원 기금달성을 목표로 기금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 동문간의 親睦역할을 할 동창회보의 발간을 위해 회보발간위원회를 두고 지난 91년 1월 창간호를 발간했다. 同회보는 발간부수를 2천부정도로 여유있게 발간하고 있는데, 이를 동문들 뿐만 아니라 전북내의 각기관등에도 고루 배포하고 있어 母校의 위상을 지역사회에 널리 인식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발간횟수는 현재 연1회 발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회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또한 同支部에서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 90년 10월 在京전북지역 인재들의 배움의 요람이 될 「전북장학숙」의 건립기금을 희사하기도 했다.

『각계각층의 내노라하는 인사들이 동창회에서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殷茂一 총무이사(65년 文理大卒. 전북대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전북지부는 짧은 기간동안 조직적인 활동과 봉사정신으로 우리 동창회 지부충에서도 모범적인 지부로 손꼽히고 있다. 취재중에도 同支部사무실에는 여러 동문들이 찾아와 다음 행사를 계획하고 답소들을 나누는 모습이어서 同支部결성의 의미를 십분발휘하고 있었다.〈洪〉

支部 안테나

◇全北지부 5대 행사 중의 하나인 新入生 환영회

「音樂의 밤」등 5대行事 열고 基金造成·會報발간 事業도

崔主鎬회장 방문 계기 90년 發足

柳仁相 회장

全州에서 2代째 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柳仁相(53년 醫大卒) 전북지부회장을 全州에서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는 柳회장이 母校재학시절과 졸업후 잠시 서울주도 통합병원에서 안과과장으로 軍복무를 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근 30여년을 전주에서 眼科醫로 명성을 날리고 친목과 결속 그리고 이들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한후 이어서 母校총장과 동창회장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柳회장은 『무분에 대한 존경과 함께 충동창회와의 연계, 그리고 항상 母校를 잊지않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는 동창회장으로서 『전북 8백여동문의 단결과 친목을 위해 자기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관하겠다』고 덧붙인다.

2代째 醫師로 헌신 犧牲·奉仕정신 강해

濠洲시드니

동창회 濠洲 시드니支部(회장 李成俊)는 지난해 12월14일 국제학술교류차 시드니에 들른 모교 工大 李基俊학장 일행을 위한 환영 모임을 갖고 친목을 나누면서 모교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李基俊학장과 자원공학과 강우명교수, 전자공학과 김태정조교수등 일행은 지난 91년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개최된 공학교육협회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귀로에 시드니대학과 New South Wales대학에서 국제교류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동창회 시드니支部를 찾았었다.

이날 환영모임에는 시드니지부에서 박용철(52년工大 화공과卒)·이응표(57년 工大 화공과卒)·신동명(61년 工大 자원과卒)·허달웅(73년 工大 화공과卒)·유의규(57년 文理大 지질학과 입학)등 동문들이 참석했다.

아르헨티나

동창회 아르헨티나支部 회장인 裵大漢(51년 農大卒·농반) 동문이 일시 귀국 지난 1월22일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르헨티나支部 소식 및 그곳 동문들의 근황을 알려주었다.

아르헨티나支部는 지난해 10월 제21차 국제천문연맹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 7명을 위한 환영모임을 갖고 친목을 나눴다.

이자리에는 모교 윤홍식교수를 단장으로한 김두환·권석민·윤태식교수와 아르헨티나支部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裵大漢회장은 현재 아르헨티나 한국교민회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베소(蘇)교포경제교류사업추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지부에서 국제천문연맹 총회에 참석한 동문들을 위해 베푼 환영연.

「해외자원 개발전략과 한국이민의 미래상」에 대해 주제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외한민족지도자로서 폭넓게 활약하고 있다. 그는 또 韓·蘇교포경제교류사업추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서 해외한민족대표자 회의에 임명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나라의 盛衰와 政策결단

經濟·社會 우려 목소리 커

技術개발 價値觀 재정립 切實

朴 宇 熙
〈58년 商大卒 · 모교 社會大 학장〉

時論

인간의 행복이 한방향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듯이 한나라의 문명도 길게 보면 흥망성쇠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엉성했던 나라가 흥융했을때도 있고 당당했던 나라가 쇠퇴한 경우도 허다히 있다. 흥융과 쇠퇴의 기간이 반드시 긴것만도 아니다.

역사를 길게보면 아즈텍, 안데스, 앙코르와트제국이 이젠 흔적이 없듯, 또 중동의 문명이 이집트제국으로 정점을 이루지 않고 이오니안반도의 한 작은 민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가, 그전엔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로마인에 의해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멸망했던 것들, 이 모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서구 기독교문명은 모슬렘이나 바이킹의 침략에도 자기방어를 할 수 없던 허약한 사람들의 사회였다. 17세기 서구의 중심은 네덜란드의 북방지역이었다. 이곳도 전에는 스페인의 침공을 겪우 피한 형편이었다. 영국만해도 18세기 및 19세기초에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였지만 그전에는 그리 주목되는 나라가 아니었다.

2차대전 이후에도 흥망성쇠가 역연하다. 독일과 일본이 급속히 성장, 이젠 가장 부유하고 알찬 나라가 되어 있지만, 독일만 해도 19세기 전반에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였고 관세동맹과 제국형성후 1917년께야 겨우 영국을 앞지를 수 있었다. 일본만 해도 19세기 중반까지는 서양에 비해 극히 가난하였으나 1867년 明治維新후 반세기 남짓한 사이에 공업화를 통해 이제는 세계굴지의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 반대로 영국은 2차대전후 성장이 떨어져 지금으로선 개인당 소득이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됐고 곧 신흥공업국의 상위 절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최근 20년간 아시아지역에서 신흥공업국이 생겨나왔고 지난 2년간에는 新신흥공업국이, 또 앞으로는 新新신흥공업국이 생겨날 수도 있게 되었다. 소련만해도 3백년전 오랜 타타르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 피터제국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전성기에 들어섰으나 이젠 그것도 사회주의 체제의 비능률로 급경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머리속에 언제나 선진국으로 낙인되었던 나라들도 알고보면 그 번성의 기간이 그리 길지 못하였고, 또 우리 머리속에 언제나 가난한 나라로 생각됐던 나라들도 30년내에 걷잡히 공업화할 수 있다는 역사적 증명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우리의 공업화 역사는 30년 남짓하지만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 나라가 그간 흥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는 혹 기울여 지고 있지나 않은지, 아즈텍의 꼴이 되지 않을지, 영국과 같은 모습이 되지나 않을지, 지금의 이 어려운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려움인지, 발전의 고비를 넘어 쇠퇴하는 과정에 빠져들고 있지나 않은지,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의 뇌리를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걱정은 단순히 물가가 얼마 올랐다든가,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에 달하였다든가 하는 경제지표의 하강추세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보다 민주화란 역사적 물결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든가, 개방의 국제적 물결을 피할 수 없다든가 하는 그런 전환점에서 우리 스스로 경제를, 또 사회와 정치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혹 쓰러지지나 않을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1950년대 라그나 넉시교수는 한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4반세기가 지난 지금 여러가지 개발경험에 비추어보면 한 나라는 개발정책이 나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정책결정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어떠한 나라도 개발을 가속화할수 있다는 경험적 결론들이 제 우리는 잘 알고있다.

이렇게 보면 이때까지 우리는 남들에 비해 그래도 괜찮은 정책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에 들어선 경제적조건이 안팎으로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고, 경제도 경제만이 아닌 사회, 정치와 맞물리면서 사람의 욕구, 이념과 환경, 교통 등 여태껏 고려할 필요조차 없던 많은 요인들이 중요시되면서 경제발전을 경제사회발전으로, 또 인간의 발전으로 이어야만 하는 전환기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정책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이며, 그래서 나라가 쇠퇴할지도 모른다는 운명타령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는 앞으로 곧 닥칠 선거, 사회간접자본의 태부족, 수출경쟁력의 약화, 노사분규기틀의 미확정, 토지가격의 상승, 지하경제의 투기, 부의 편중등 여러가지가 있다. 아울러 좀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기술개발과 인간개발 및 가치관의 문제를 들 수도 있다.

나라의 흥망성쇠란 우습잖은 정책 착오로 오도될 수 있다. 기우뚱거리는 나라경제를 바로잡아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결단이 필요한 때다.

◇우리의 공업화 역사는 30년 남짓 하지만 많은것을 이루어 놓았다.

選擧 수출競爭力 약화 勞使분규 슬기롭게 넘겨야

우리는 서울大家族

李慶煥동문家

李慶煥(42년 工大卒·前라이프주택顧問)동문은 『자식들에게 써서 없어질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했으나 스스로 미래를 다져 나갈 수 있게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낌없는 투자를 한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다.

기실 古稀를 넘긴 李同門에게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와 각자의 분야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아들同門」들은 生의 旅程에서 느꺼온 그 어느 희열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일 것이다.

그의 자식 4남매중 아들 3형제가 동문이 될 수 있었던 연유를 2남 賢淳(73년 工大卒·현대자동차理事)동문은 『부친이 일제시대에 일본인에게 억눌려 지내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길은 배움을 통해 일어서는 것이란 신념으로 유난히 자식들의 공부에 대해 엄격하셨다』면서 자녀들의 유학문제도 적극 간여 한곤 했다고 말한다.

서울 토박이인 이들은 부친을 비롯한 온 가족이 미동국민학교부터 同門이라는 기록도 지니고 있는데, 따로 떨어져 사는 요즘도 매주 토요일이면 한자리에 모일만큼 우애 또한 돈독하다.

李동문의 장남 範淳(71년 工大卒)동문은 모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美오하이오大 풀·스칼라십에 선발되어 이곳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는 BT ookheaven국립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첨단분야의 신합금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의 부인 柳慶熙씨 역시 76년 音大를 나온 서울大人이며, 柳洸秀동문의 아버지 柳慶熙씨 또한 47년 農大를 졸업했다. 차남 賢淳(본보 제155호 人物소개)동문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술자립元年」을 연 장본인으로 그가 개발한 1천5백cc급 승용차용 가솔린엔진(일명 알파엔진)이 국내 업계에 미친 여파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교 졸업후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M에 근무하던중 84년도에 현대가 蔚北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스카우트된후 국산차 엔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현재는 알파엔진보다 한걸음 앞선 베타엔진 개발에도 욕심을 내고 있다고. 그의 丈人 郭炳奭동문 역시 51년 法大를 졸업했다.

◇회갑기념 가족사진 (뒷줄 왼쪽이 長男, 가운데 3男, 맨 오른쪽이 2男)

"教育投資에 큰 自負心"

슬하 4男妹중 3형제가 博士

3남 弘淳(79년 醫大卒·국립의료원 내과 심전도실장)동문은 일찍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심장학계의 태두 鄭求榮(57년 醫大卒·美토마스제퍼슨대부학장)박사의 후계자로 선발되어 門下에서 배움을 받아국내에서 주목받는 전문의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일가친척중 同門으로 외사촌동생 朴善澤(59년 法大卒)과 그의 아들 鍾郁(79년 工大卒·과기대교수), 질부 黃貞淑(82년 大學院卒·충남대교수) 등이 있다. 현재의 충정로 本家에서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살아왔다는 李慶煥동문은 경북·용산고교, 서울여고에서의 교직자생활을 거쳐 토건업계에 몸담아 은퇴하기까지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남보다 우월하기 위한 방법은 노력뿐」이라는 신념을 자신과 가족들에게 강조해 왔다고한다. 이화동 高시절 토목과 韓人학생 모임인 「圭林會」를 오늘날까지 50여년간 이끌어 왔다는 그에게 모교에 대해 갖는 심정을 묻자 자신의 가정을 훌륭하게 배출해준데 대한 「감사」로 요약한다.

지금도 온가족이 모이면 각자의 전공분야에 대해 논의하길 좋아한다는 李동문 가족에게 새해 소망이 있다면 모교와 가문의 명예를 위해 무언가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서울大人이 되는 것이라 전한다.

〈金庚勳 기자〉

成百銓동문家

夫人·아들 모두 工大출신

子婦만 집안에서 유일한 藝術家

모처럼 함박눈이 소담스럽게 내리던 날,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에게 成百銓동문은 그가 사장으로 재직중인 한국해외기술공사의 창밖으로 펼쳐진 雪景을 가리키며 우선 「우리정원」의 설경부터 감상하자고 권했다.

56년 母校 工大 토목공학과를 나와 工大 2년 후배인 부인 金安順(58년 화학공학과卒)동문과 함께 동문 가족을 이루고 있는 成동문은 建設部 水資源국장, 서울지방國土管理廳長등 그의 履歷이 말해주듯 건설계통의 일로 일관해 왔으며, 현재 韓國海外建設주식회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토목관련학회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成동문이 金동문과 결혼하게 된 것은 당시 부인이 다니던 화학공학과에 집안 친척이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자주 드나들다보니 자연히 金동문과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결혼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들 동문부부는 슬하에 1男1女를 두었는데, 長女 정미氏는 고려대 의대를 나와 현재 미국에서 夫君과 함께 醫師로 활동하고 있다.

아들 廣濟동문은 부모의 뒤를 이어 모교 工大를 나왔는데(85년 제어계측공학과卒) 역시 母校 출신인 부인 張洲寧동문(89년 美大공예과卒)과 함께 美國 미시건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美國유학중인 아들 내외가 귀국하여 자리를 함께한 成동문 가족.

내년에 아들부부가 留學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는 成동문은 그러나 체류기간을 더 연장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쪽을 바란다고.

자신들의 화창생활이 『당장 就職을 해야 먹고 살 형편』이었다고 회고하는 成동문은 아들부부가 현재 받고있는 奬學金의 혜택이 아니더라도 훨씬 윤택한 형편에서 하는 공부니 만큼 좀 더 학업에 정진해 理論과 實務를 겸비해주길 바라고 있다.

子女를 키우면서 직접적인 지시나 요구보다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면서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거들어 주고자 했다는 成동문은 또한 항상 봉사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라는 宗敎的 교리의 실천을 강조해 왔다고.

장성한 두자녀를 모두 외국에 보내놓고 섭섭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成동문은 『방학을 이용해 자녀들이 오기도 하고 또 자신들도 1년에 한번씩은 그들을 방문하고 있어 그다지 섭섭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특히 작년 8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1주일정도 美전역을 여행하기도 했다고.

며느리 張洲寧동문에 대한 시아버지로서의 사랑은 각별한듯 했는데 「工大집안의 예술가 며느리」라고 추켜 세우길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 새아기가 유난히 성격이 세심합니다. 2~3주에 한번씩은 꼭 편지를 하는데 자신들의 자세한 근황과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한데서 오는 미안함들을 나타낸 며느리의 편지를 받는 것은 나를 아주 기쁘게 합니다』

동문가족으로서 내심 자랑스럽지만 밖에서는 오히려 가족얘기를 삼가는 편이라는 成동문은 工大家族의 家長으로서 『오랜동안 건설부에 몸담고 있었지만 막상 건설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는 공대인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라며 우리나라가 기술보국을 이루려면 앞으로 사회가 전문인을 적극 양성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洪慶華기자〉

잊을 수 없는 스승

글 朴振煥 〈52년 農大卒·農協大學長〉

農業經濟學의 선구자

鄭南圭 선생님

京都帝大 졸업후 渡美, 博士취득

戰後 열악한 環境 불구 農大 부임

農振廳 農林部 農協서도 중책맡아

농업의 科學化, 農村 근대화 힘써

過勞로 일찍 세상떠나 안타까운 마음 더해

세월의 흘러감이 너무나도 빨라 선생님께서 世上을 떠나신지도 어언 20년이 지났다。선생님께서 世上을 떠나신 후에도 우리 門下生들의 마음속에는 先生님의 모습이 언제나 떠나지 않았다。

바쁜 生活에 쫓기다 보니 先生님이 계시는 곳을 자주 찾아 뵙지 못해 그저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생님께서는 보통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조차 없었던 해방직후의 그 혼란과 과도기 속에 師母님과 어린 아이들을 한국땅에 두고서 이국만리 미국유학의 길을 떠나셨었다。

日本의 京都帝國大學의 최고학부를 졸업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최고지성으로 인식되던 그 당시였는데도 굳이 博士學位를 얻겠다고 홀로 훌쩍 출발하신 것은 先生님의 學問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렬했었는가를 말해준다。

그러나 미국 Wisconsin 大學에서 博士과정이 채 끝나기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先生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셨겠으며 피난길을 나선 가족들을 얼마나 걱정하셨겠는가。

참혹했던 6·25戰爭이 휴전상태로 들어가던 무렵에 先生님께서는 博士學位를 끝내고서 錦衣還鄕하셨다。筆者는 그 당시 學部 4年을 막 卒業하고서 農業經濟學科의 助敎로 남아 있을 때였다。

6·25戰爭으로 學生이나 先生님들이 뿔뿔이 흩어져 학교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때였다。특히 우리 농업경제학과는 學生들을 가르칠 先生님이 없었다。그러던 차에 鄭南圭博士님께서 귀국하시게 되었으니 우리들의 기쁨은 한량이 없었으며 先生님이 베푸신 은덕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

귀국하시자마자 先生님과 前이어서 水原역의 기관차에서 버린 石炭속에서 타다남은 것을 구입하여 땔감으로 쓰던 때였다고 기억된다。美軍부대에서 흘러나온 보류깡통을 새끼줄에 매달아 두레박을 만들어 우물물을 길었던 기억이 난다。

先生님께서는 겨울철 어느날 우리집이 추워서 견디기 힘드니 市內에 나가서 中國의 배갈 소주를 식량난은 원조양곡으로 充當되었으며 化學肥料도 全量 원조자금으로 輸入했던 때였다。그리고 쌀값 波動을 겪을 때 마다 農林部 長官의 責任자임으로 사태를 수습하곤 했었다。이같은 과도기에 先生님께서는 農林行政의 重責을 맡게 되어 오늘의 農林行政의 農用資材와 營農資金의 공급이었다。不足한 農用資材와 營農資金등은 下向式으로 조직된 농협기구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었다。1960년대 초의 革命政府는 農業銀行과 協同組合을 통합 오늘의 綜合農協을 발족시켰다。

그리하여 先生님께서는 새로이 발족된 綜合農協의 조직과 운영의 기틀을 만드는 重責을 맡게 되셨다。先生님께서는 방대한 조직기구와 수 많은 직원을 거느린 農協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 運營의 能率을 높이기 위해 많은 精力을 쏟으셨다。

선생님은 博士學位를 끝내고서 귀국하신후 이와같이 선구자와 개척자로서 쉴새없는 나날을 보내셨다。대학에서 농촌진흥청에서、農林部에서、그리고 農協에서 등등……

이 때 많은 사람들은 『鄭博士는 너무 過勞하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 차에 그만 過勞로 병상에 누우시게 되었다는 놀라운 悲報를 듣게 되었다。

돌이켜 보건대 先生님께서는 우리나라의 近代化初期에 남달리 많은 공부를 하시었다。그것으로 말미암아 국가와 社會는 先生님을 너무 많이 혹사시킨 것 같다。農民을 위해 나라를 위해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신 나머지 自己自身의 건강을 해치셨다。先生님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신 대신 너무 빨리 世上을 떠나시게 된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禁할 수가 없다。

先生님의 선구적이고 개척자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다。

『우리 門下生들은 삼가 머리숙여 先生님의 恩德에 감사드립니다。

先生님의 子女들은 先生님의 뜻을 받들어 훌륭하게 자랐습니다。子女들을 이렇게 까지 길러내신 師母님도 건강하십니다。부디 모든 근심걱정 다 잊으시고 마음 편히 쉬십시오。

◇생존시 선생님 모습

鄭南圭 선생님께서는 農業經濟學分野에서 만이 아니라 一般經濟學分野에서도 美國에서 博士學位를 취득한 初有의 人材이셨다。

現代經濟學의 선구자이셨던 先生님의 才能은 비단 大學에서만 아쉬웠던 것은 아니었다。政府에서도 先生님의 才能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6·25戰爭직후의 한국에는 미국에서 선진된 學問을 배워 온 사람의 수가 불과 몇명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의 한국은 아직도 가난한 農業의 나라였으며 戰爭을 겪은 農村은 춘궁기와 草根木皮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따라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개별농가에 보급하는 일은 時急한 국가적 과제로 되고 있었다。

당연한 처사로 先生님께서는 우리나라 농업시험사업과 지도사업의 科學化와 民主化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총책을 맡게 되셨다。그 결과로 어디를 가나 〈농촌지도소〉의 建物이 서게 되었다。우린 그럴때마다 民主的인 농촌지도사업을 개척하신 先生님을 생각하게 되었다。先生님께서 개척하신 硏究와 指導의 專門人力들이 있었기에 1970년도의 綠色革命과 主穀의 自給化를 이룩할 수 있었다。

6·25戰爭후 우리나라의 논리를 定立하고 科學行政과 能率行政의 기틀을 만들어 놓으셨다。5·16革命직후의 軍事정부내에서 先生님과 같이 高度의 科學的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선구자로서의 같은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1960년대의 우리나라 農家들에게 긴급했던 것은

李東馥 남북高位級회담 代辯人

同門을 찾아서

「合意書」지켜지리라 確信

"7·4 共同聲明과는 성격 달라"

조급한 期待 버리고 北체제변화 도와줘야

이번호 「同門을 찾아서」는 역사적인 南北合意書가 채택되고 난 후 이에 따른 3개 분과위와 연락사무소 구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23일 판문점에서 첫 대표접촉을 갖고 막 돌아온 李東馥(57년 文理大政治學科, 국무총리特補) 동문을 만났다。남북고위급회담의 대변인으로서 7·4공동성명때부터 남북대화에 깊이 관여, 해박한 지식과 능란한 화술로 남북대화에 관한 한 「實勢」로 지목되는 그에게 이번 접촉결과에 대해 묻자 『오는 19일 6차 평양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는 남북합의서에 따른 정치 군사 교류협력 3개 분과위를 구성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연락사무소 문제등은 토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20년 이상을 설왕설래하면서 北측의 태도변화에 따라 反轉을 거듭해온 남북대화인지라 이번 남북합의서를 놓고서도 여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의적인 반응에 대해 李동문은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점철돼온 不信』이라고 정의한 후 이번 합의서가 7·4공동성명(그는 이를 「私文書」에 비유했다) 등 종전의 것과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첫째 이번 합의서는 쌍방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공히 법적인 뒷받침(예로써 北측의 최고인민회의등에서의 추인)을 충족시켜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건이라는 점과 둘째 이번 25개조항들은 지금까지의 국제평화조약이 담고있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 국제관계에서의 평화공존을 지향함으로써 대립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평화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다음으로 南北 어느쪽도 이 합의서를 갖고 「Double Talk」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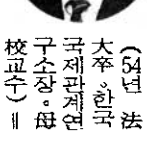
58년 韓國日報에 입사, 政治部 기자로 10여년간을 활약하다가 69년 三選改憲을 보고는 『정치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 言論생활을 그만두고 공부를 계속할까 생각하던중 71년 적십자회담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업본 인 李相姬(66년 文理大卒) 女史와 사이에 昇遠, 季遠(모교 경영대 3년) 2남을 두고 있다。한편 이상희동문은 오빠 李相禹(61년 法大卒, 서강대 敎授) 동문을 비롯, 5남매가 모두 서울大人이라고。

이번 합의서를 기점으로 앞으로 이어질 정상회담과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李동문은 『기존 힘의 논리로써 통일을 추구한다면 교착상태만 지속될 뿐』이라며 그들 스스로 냉전을 극복하고 통일의 장으로 나오게끔 유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시작이 반이라고, 조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개방의 논리로 이야기해서 그들 스스로 「自轉」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즉 北韓이라는 폐쇄된 체제가 큰 모험없이 질서에 의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統一이라는 민족의 대역사를 이루어내는 관건』이라고 말하는 李동문의 눈빛에서 南北對話의 초창기부터 오늘까지 숨가쁜 역사의 현장에서서 뚜렷한 신념으로 내일을 다져나가는 또하나의 서울大人을 찾았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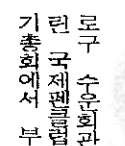
〈金炳勳 기자〉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개혁의 문은 열리는가」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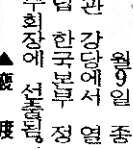
▲趙世衡(54년 文理大·國會敎育委員會 理事)‖1월28일 행공사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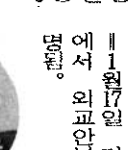
▲崔鍾起(54년 法大卒, 한국국제관계연구소장·母校교수)‖1월12일부터 23일까지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와 중국사회과학원의 초청으로 북경을 방문, 한반도문제에 대한 강연과 韓·中간의 학술교류에 대해 협의하고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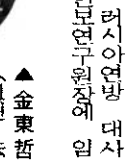
▲趙渡(57년 法大卒·동양폴리에스터 사장·本會理事)‖1월28일 열린 韓國化纖協會 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됨。



▲尹鍾勳(57년 文理大卒·詩人·홍익대 교수)‖1월9일 종로구 수운회관 강당에서 열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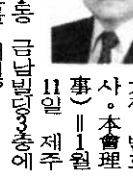


▲李相周(57년 文理大卒·한국국제문화협회장)‖최근 올1월 발족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사장에 임명됨。



▲李相周(60년 師大卒·울산대총장·本會理事)‖美피츠버그 대 동창회장으로서 1월29일 오후7시 잔실롯데월드호텔 3층에서 92년 정기총회를 개최。

▲孔魯明(61년 法大卒)‖1월17일 러시아연방 대사에서 외교안보연구원장에 임명됨。



▲金東哲(61년 法大卒·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최근 무료법률상담및 법률구조절차, 판례등을 소개한 季刊「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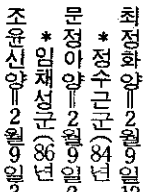
林엔지니어링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許永燮(64년 工大卒·本會理事)‖1월4일 녹실차 사장에서 대표이사회장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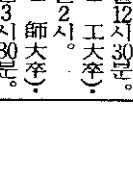
▲玄敬大(64년 法大卒·변호사·本會理事)‖1월11일 제주시 삼도1동 금남빌딩3층에 법률사무소를 개설。

▲沈載榮(64년 商大卒·前미쉐런코리아 사장·本會理事)‖1월4일 녹실차 사장에서 대표이사회장으로 승진。

▲許永燮(64년 工大卒·本會理事)‖1월4일 녹실차 사장에서 대표이사회장으로 승진。



▲朴哲遠(68년 商大卒·삼성물산상무)‖1월17일 열린 호암아트홀에서 同악단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尹東天(85년 美大卒)‖1월8일 제11회 石南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됨。

▲崔鍾文(85년 行政大學院卒)‖1월16일 은행감독원 부원장보에서 한국은행감사로 승진。

掲示板

同窓會館 冠岳홀

結婚

* 홍순근군88년社會大卒)·김현아양‖2월8일12시。
* 박선중군(89년社會大卒)·권민숙양‖2월8일1시30분。
* 김상호군(88년 農大卒)·김미정양‖2월9일11시。
* 유강근군(90년社會大卒)·최정화양‖2월9일12시30분。
* 정수근군(84년 工大卒)·문정아양‖2월9일2시。
* 임채성군(86년 師大卒)·조윤신양‖2월9일3시30분。
* 송문규군(90년經營大卒)·김현순양‖2월15일12시30분。
* 최병문군(89년自然大卒)·임춘희양‖2월15일2시。
* 황금윤군(86년 師大卒)·임혜란양‖2월15일3시。
* 송교식군(84년 師大卒)·방선옥양‖2월15일4시30분。
* 오석배군(90년 齒大卒)·이정숙양‖2월16일12시30분。
* 박주선군(85년社會大卒)·송태영양‖2월16일2시。
* 이상헌군(89년社會大卒)·최순호양‖2월16일3시30분。
* 박상훈군(91년 工大卒)·유영순양‖2월20일12시。
* 오창호군(89년 工大卒)·이양희양‖2월22일12시30분。
* 최 상군(88년 農大卒)·김효정양‖2월22일2시。
* 이인재군(87년 美大卒)·김혜정양(84년 美大卒)‖2월22일3시30분。
* 노운진군(醫大 재학중)·안득경양‖2월23일12시30분。
* 곽종원군(88년 工大卒)·김선한양‖2월23일2시。
* 김준영군(90년獸醫大卒)·김정란양‖2월23일3시30분。
* 강경수군(89년經營大卒)·임수영양‖2월24일1시。
* 전정하군(工大 재학중)·황미선양‖2월29일1시。
* 이철우군(法大 재학중)·박보길양‖2월29일2시30분。
* 李興鍾(58년 師大卒·禮一女高校師)동문 長女 규옥양‖1월18일 오후2시 신랑 박경철씨와 규수당예식장서 화촉

訃音

▲吳仁赫(52년 醫大卒·前母校교수)‖1월16일 오전 1시5분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향년65세。

▲李崇寧(33년 文理大卒。백제문화연구원장。本會理事) ‖ 최근 경북고 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낸 인물에게 수여하는 제1회 경북동문대상 수상자로 선정됨。

▲洪彰義(47년 醫大卒。새건강신문사장 간위원장。本會理事) ‖ 1월21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同신문 창간 1주년을 기념하는 자축연을 개최。

▲趙淳(49년 商大卒。前부총리) ‖ 1월13일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지성3백인회 주최로 열린 시국토론회에 참석, 최근경제정세와 경제전망에 대한 주제를 발표。

▲宣德英(49년 醫大卒。선이비인후과의원장) ‖ 1월5일부터 24일까지 渡美, 세인트루이스와 보스톤대학의 이비인후과 학발전상 및 근황을 둘러보고 귀국。

▲李丙昊(52년 文理大。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장。本會理事) ‖ 1월27일 윤리정치국민운동본부 총재로서 한국일보송현클럽에서 창립총회 및 세미나 개최。

▲崔弘基(52년 文理大卒。母校명예교수) ‖ 최근 한국가족학회장에 피선됨。

▲金元鎬(53년 商大卒。前대한여행사부회장。本會理事) ‖ 1월13일 ㈜에주투어국제학생여

▲洪承丸(54년 法大卒。전국투자금융협회장。本會理事) ‖ 12월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同會 창립회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임됨。

▲金善弘(55년 工大卒。기아자동차회장。本會副會長) ‖ 1월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에 위촉됨。

▲徐奎澤(55년 法大。前코오롱의약사업본부상임고문) ‖ 1월7일 동성제약 부회장에 선임됨。

▲車仁錫(56년 文理大。母校철학사상연구소장) ‖ 1월30, 31일 양일간 母校 호암생활관에서 「과학기술혁명과 인간의 가치」를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韓東元(56년 法大卒。한국언론연구원장。本會理事) ‖ 최근 16번째 연구서로 「90년대 신문경영-경영관리」를 출간。

▲姜晋佑(56년 商大卒。本會理事) ‖ 1월27일 롯데제약 부회장에 임명됨。

▲李相滿(56년 獸醫大卒。정남중학교장。本會理事) ‖ 최근 한국보이스카웃연맹으로부터 보이스카웃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궁화 동장을 수상。

▲金東仙(57년 工大卒) ‖ 1월8일 대한전선부사장에서 연합전선 사장에 선임됨。

▲柳赫仁(57년 商大卒。本會理事) ‖ 최근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장에 임명됨。

▲朴贊文(57년 商大卒。本會理事) ‖ 최근 한국은행 감사에서 금융결제원장에 임명됨。

▲鄭佑賢(57년 音大卒。서울예고교장。音大동창회장) ‖ 2월18일 10시30분 同校 강당에서 정년퇴임식을 할 예정。

▲崔東鎭(58년 文理大卒。駐스웨덴대사) ‖ 1월18일 駐라트비아공화국 대사에 겸임발령。

▲金奎式(58년 法大卒) ‖ 1월27일 롯데삼강 사장에서 롯데제과 사장으로 전보。

▲沈明輔(58년 法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 ‖ 최근 강원도 영월 주천중종고 동창회장으로서 장학위원회를 설립。

▲林仁秀(58년 師大卒。한림출판사사장) ‖ 12월21일 문화부로부터 출판문화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문화가족상 「신진상」을 수상。

▲全武植(58년 大學院卒。한국과학기술원교수) ‖ 1월21일 오후6시 롯데호텔에서 華甲宴을 겸한 논문집출판기념회를 가짐。

▲李萬用(59년 商大卒。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3回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尹億雯(60년 文理大卒。駐핀란드대사) ‖ 1월18일 駐에스토니아공화국 대사에 겸임발령。

▲李承坤(60년 文理大卒) ‖ 1월27일 의무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朴炳潤(63년 商大卒。한국일보편집국장) ‖ 1월23일 열린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운영위원장에 선출됨。

▲金鳳一(64년 工大卒。本會理事) ‖ 1월8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부회장。本會理事) ‖ 1월28일 열린 韓國化纖協會 임시총회에서 상근부회장에 선출됨。

▲鄭炳錞(62년 文理大卒) ‖ 1월7일 삼성생명 전무에서 東星투자자문 사장으로 승진。

▲許陞(62년 文理大卒) ‖ 1월27일 駐서네갈대사에서 외무부 제2차관보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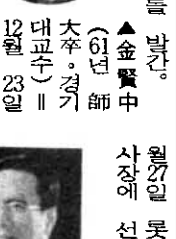
▲金基仁(62년 法大卒) ‖ 1월28일 관세청장에서 담배인삼공사 사장에 임명됨。

▲朴尙雨(62년 藥大卒) ‖ 최근 일동제약의 석좌연구원에 선임됨。

▲兪尙根(62년 行政大學院卒。行政大學院同窓會長) ‖ 1월14일 명지대학교 총장에서 명예총장으로 추대됨。

▲李海旭(63년 商大卒。한국통신사장。本會理事) ‖ 최근 한국통신사장에 연임됨。

▲金世澤(63년 法大卒。駐덴마크대사) ‖ 1월18일 駐리투아니아 대사에 겸임발령。



▲許陞(62년 文理大卒) ‖ 1월7일 삼성생명 전무에서 東星투자자문 사장으로 승진。

▲許陞(62년 文理大卒) ‖ 1월27일 駐서네갈대사에서 외무부 제2차관보에 임명됨。

▲金基仁(62년 法大卒) ‖ 1월28일 관세청장에서 담배인삼공사 사장에 임명됨。

▲朴尙雨(62년 藥大卒) ‖ 최근 일동제약의 석좌연구원에 선임됨。

年會費내주신분

〈91년12월16일~92년1월18일까지〉

人名밑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會長團

▲金在淳부회장…50만원
▲李洙彬부회장…50만원

常任理事

▲崔鍾浣공대회장20만원
▲沈鍾燮농대회장20만원
▲金瑞鳳미대회장10만원
▲韓明承약대회장20만원
▲鄭佑賢음대회장10만원
▲楊銀淑간호대회장…10만원
▲金道昶대학원회장…10만원
▲魏駿巒교육대학원회장…10만원
▲崔 浩신문대학원회장…10만원

理事

◇家政大學
▲金敬子(63) 주부

◇工科大學
▲金昌圭(48) 대림산업부회장
▲金顯喆(62) 금아동상사장
▲盧準喆(67) 럭키석유화학여천공장
▲申庚植(55) 임광토건사장
▲李庚相(59) 대한철광개발사장
▲李光魯(51) 서울대교수
▲李愚賢(56) 중앙대교수
▲曺圭完(55) 삼부산업사장
▲車千壽(52) 천혜기업사장
▲崔錫煥(50) 세광종합기술단대표이사

◇農科大學
▲姜銓愉(61) 나부총합병원장
▲郭芝相(57) 수안보온천장호텔사장
▲金康植(56) 동문진흥청차장
▲金祥鎬(62) 대풍상사차장
▲金鎭八(52) 미성농약사장
▲吳敏榮(55) 임업연구원연구관
▲柳漢雄(62) 柳園진흥원
▲崔賢植(62) 금호엔지니어링

◇文理科大學
▲高英煥(59) 녹십자의료공업사장
▲閔錫泓(48) 서울대교수
▲申鉉千(53) 前경상대총장
▲尹大仁(74) 삼천당사장
▲鄭一永(51) 前국민대총장

◇美術大學
▲李容煥(54) 건국대교수

◇法科大學
▲李應漢(50) 변호사
▲金仁煥(60) 효성중공업사장
▲金憲武(63) 전주지방법원장
▲孫京植(61) 안국화재해상보험사장
▲廉準世(62) 대우그룹이사
▲柳重年(59) 웨스콘사장
▲李貴昊(58) 코리아제록스부사장
▲崔慶元(67) 대구고검차장검사
▲韓正鎭(54) 변호사

◇師範大學
▲南億祐(56) 인천교대교수
▲朴翊斗(64) 국민대교수
▲趙泰璟(55) 공주사대교수
▲千榮喜(67) 제일제당이사

◇商科大學
▲權赫台(57) 前풍만제지부사장
▲金斗山(63) 한국유리이사
▲金榮洙(56) 강원도교원연수원장
▲朴燦鍾(65) 국회의원
▲朴贊弘(56) 한국철구사장
▲蘇在洙(64) 포카드코리아사장
▲李昌一(65) (주)대왕사장
▲張潤相(55) 남원시장
▲鄭基完(56) (주)대상대표이사
▲鄭允泳(52) 영진실업회장

◇齒科大學
▲金규택(41) 김규택치과
▲金哲玉(60) 김철옥치과
▲金海洙(49) 김해수치과
▲金圭炆(63) 금성치과의원장
▲金鳳浩(60) 김봉호치과
▲明魯哲(69) 명치과의원
▲邊榮男(69) 성신치과의원장
▲林采均(57) 임채균치과
▲玄天燮(59) 현치과의원

◇看護大學
▲朴明子(56) 방송통신대연구관
▲金梅子(64) 서울대교수
▲劉炯來(60) 성아병원
▲李純炯(62) 서울대교수

◇社會大學
▲권윤태(89)
▲김중현(85)
▲박성모(89)
▲이훈진(87)
▲조현묵(79)
▲최재호(76)
▲김영태(88)
▲김현옥(86)
▲윤정화(88)
▲임방혁(83)
▲최용희(89)
▲황성훈(88)

◇自然大學
▲권 혁(89)
▲김정기(87)
▲노은하(89)
▲박승홍(88)
▲배명문(85)
▲송병운(87)
▲양명룡(78)
▲오수형(88)
▲이영로(86)
▲정명관(87)
▲최상락(89)
▲김상보(86)
▲김정식(87)
▲류민선(88)
▲박요섭(89)
▲서정근(87)
▲송양섭(88)
▲예은주(84)
▲이석주(89)
▲이헌식(79)
▲정영하(86)

◇家政大學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지난해엔 同窓會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깊은 관심과 편달있으시기 바랍니다.

會費는 1년에 한번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되도록 年初에 내 주셔서 同窓會 事業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會費내역 —

- 一般會員……1만원
- 理 事……5만원
- 常任理事……10~20만원
- 監 事……30만원
- 副會長……50만원
- 會 長……100만원

▲趙繼基(55) 화풍섬유부사장
▲趙容燮(53) 한국산업리스회장

◇獸醫科大學
▲姜大敬(54) 삼양통상

◇藥學大學
▲韓庶煥(50) 한전약국
▲朴文基(51) 해태유업부사장
▲尹淳善(57) 삼선교약국
▲黃秉龍(60) 동국제약전무이사

◇醫科大學
▲權寧助(62) 권소아과의원장
▲金東集(58) 카톨릭의대암연구소장
▲申萬鍊(48) 고려대명예교수

◇經營大學院
▲宋 煥(70) 한양대교수
▲李東宰(67) 중소기업은행간사

◇保健大學院
▲禹世鴻(68) 서울보건전문대교수

◇環境大學院
▲李俊雨(73) 서대문부구청장
▲李本載(75) 서울시감사

一般會員

◇人文大學
▲강혜정(86)
▲문혜정(86)
▲신동욱(87)
▲오선희(89)
▲이동일(89)
▲정일동(87)

◇社會大學
▲김영태(88)
▲김현옥(86)
▲윤정화(88)
▲임방혁(83)
▲최용희(89)
▲황성훈(88)

◇自然大學
▲김상보(86)
▲김정식(87)
▲류민선(88)
▲박요섭(89)
▲서정근(87)
▲송양섭(88)
▲예은주(84)
▲이석주(89)
▲이헌식(79)
▲정영하(86)

◇家政大學
▲김정숙(85)

◇經營大學
▲김무미(87)
▲이선민(87)

◇經營大學院
▲강영헌(88)
▲김영찬(80)
▲김재일(85)
▲김진태(86)
▲양동빈(88)
▲창성배(89)

◇工科大學
▲구연건(67)
▲이광형(68)
▲이홍종(41)
▲한갑호(41)
▲강성주(61)
▲권태원(68)
▲김건석(86)
▲김광배(74)
▲김영중(80)
▲김재동(74)
▲길종흡(49)
▲김형근(69)
▲민병주(68)
▲박의식(63)
▲서휘원(69)
▲김재식(57)
▲김완주(87)
▲김종운(77)
▲김주용(83)
▲김희욱(68)
▲박스웅(65)
▲박진주(82)
▲성도목(89)
▲송하철(89)
▲신홍균(51)
▲어민종(89)
▲유욱종(61)
▲윤순관(89)
▲이상훈(86)
▲윤호식(85)
▲이승길(88)
▲이영직(65)
▲이인태(57)
▲이홍기(67)
▲임영석(80)
▲조성래(89)
▲조응원(62)
▲조창희(89)
▲최우방(67)
▲하석태(75)
▲한순목(87)
▲송진해(72)
▲신종선(89)
▲안지훈(85)
▲유경우(60)
▲윤재건(60)
▲이상돈(83)
▲이성원(58)
▲이영근(76)
▲이용우(81)
▲이헌석(89)
▲이희원(87)
▲장천원(67)
▲조성환(58)
▲조주환(78)
▲최무기(70)
▲최희석(72)
▲하윤수(68)
▲홍정기(86)
▲이명구(60)
▲이신덕(50)
▲전성호(60)
▲정승철(67)
▲조승형(57)
▲최정국(57)
▲허 봉(63)
▲김용덕(44)
▲김유선(28)
▲홍문구(88)
▲박영문(40)
▲강월호(85)
▲김경미(89)
▲김계규(65)
▲김관식(58)
▲김달우(81)
▲김문면(61)
▲김순녀(59)
▲김목련(62)
▲김택중(81)
▲김홍우(58)
▲오상희(88)
▲유의선(71)
▲윤논혁(61)
▲류병옥(58)
▲이상철(63)
▲이경남(68)
▲임창선(76)
▲정의상(60)
▲정춘경(63)
▲조낙현(61)
▲조용목(60)
▲최광국(57)
▲최병수(57)
▲허 정(74)
▲박복양(44)
▲김상순(64)
▲김종민(66)
▲김태천(57)
▲박문규(71)
▲엽봉성(74)
▲이함철(58)
▲이화진(64)
▲조은구(58)
▲한재학(75)
▲황규백(69)
▲김광태(68)
▲김완기(66)
▲김진천(71)
▲민병유(55)
▲박지중(70)
▲오덕균(57)
▲이홍근(69)
▲정계영(66)
▲조정호(60)
▲홍사희(51)
▲이명구(60)
▲이종민(65)
▲전화수(73)
▲정태학(83)
▲차태윤(59)
▲한병호(79)
▲이술진(64)
▲김경자(65)
▲김혜자(65)
▲김효순(65)
▲이해성(65)
▲윤규선(65)
▲한혜자(65)
▲고국자(65)
▲김명진(65)
▲이영주(65)
▲이방숙(65)
▲이현우(65)
▲최구혜(65)
▲정명원(65)
▲김영자(65)
▲김혜자(65)
▲김효순(65)
▲이해성(65)
▲윤규선(65)
▲한혜자(65)
▲김경미(89)
▲김관식(58)
▲김달우(81)
▲김문면(61)
▲김목련(62)
▲김택중(81)
▲김홍우(58)
▲김순녀(59)
▲김계규(65)
▲강월호(85)
▲김용덕(44)
▲김유선(28)
▲홍문구(88)
▲박영문(40)
▲김경미(89)
▲김관식(58)
▲김달우(81)
▲김문면(61)
▲김순녀(59)
▲김목련(62)
▲김택중(81)
▲김홍우(58)
▲오상희(88)
▲유의선(71)
▲윤논혁(61)
▲류병옥(58)
▲이상철(63)
▲이경남(68)
▲임창선(76)
▲정의상(60)
▲정춘경(63)
▲조낙현(61)
▲조용목(60)
▲최광국(57)
▲최병수(57)
▲허 정(74)
▲박복양(44)
▲김상순(64)
▲김종민(66)
▲김태천(57)
▲박문규(71)
▲엽봉성(74)
▲이함철(58)
▲이화진(64)
▲조은구(58)
▲한재학(75)
▲황규백(69)
▲김광태(68)
▲김완기(66)
▲김진천(71)
▲민병유(55)
▲박지중(70)
▲오덕균(57)
▲이홍근(69)
▲정계영(66)
▲조정호(60)
▲홍사희(51)
▲김명진(65)
▲이영주(65)
▲이방숙(65)
▲이현우(65)
▲최구혜(65)
▲정명원(65)
▲김혜자(65)
▲김효순(65)
▲이해성(65)
▲윤규선(65)
▲한혜자(65)
▲김경미(89)
▲김관식(58)
▲김달우(81)
▲김문면(61)
▲김목련(62)
▲김택중(81)
▲김홍우(58)
▲오상희(88)
▲유의선(71)
▲윤논혁(61)
▲류병옥(58)
▲이상철(63)
▲이경남(68)
▲임창선(76)
▲정의상(60)
▲정춘경(63)
▲조낙현(61)
▲조용목(60)
▲최광국(57)
▲최병수(57)
▲허 정(74)
▲박복양(44)
▲김상순(64)
▲김종민(66)
▲김태천(57)
▲박문규(71)
▲엽봉성(74)
▲이함철(58)
▲이화진(64)
▲조은구(58)
▲한재학(75)
▲황규백(69)
▲김광태(68)
▲김완기(66)
▲김진천(71)
▲민병유(55)
▲박지중(70)
▲오덕균(57)
▲이홍근(69)
▲정계영(66)
▲조정호(60)
▲홍사희(51)
▲김명진(65)
▲이영주(65)
▲이방숙(65)
▲이현우(65)
▲최구혜(65)
▲정명원(65)
▲김혜자(65)
▲김효순(65)
▲이해성(65)
▲윤규선(65)
▲한혜자(65)
▲김경미(89)
▲김관식(58)
▲김달우(81)
▲김문면(61)
▲김목련(62)
▲김택중(81)
▲김홍우(58)
▲오상희(88)
▲유의선(71)
▲윤논혁(61)
▲류병옥(58)
▲이상철(63)
▲이경남(68)
▲임창선(76)
▲정의상(60)
▲정춘경(63)
▲조낙현(61)
▲조용목(60)
▲최광국(57)
▲최병수(57)
▲허 정(74)
▲박복양(44)
▲김상순(64)
▲김종민(66)
▲김태천(57)
▲박문규(71)
▲엽봉성(74)
▲이함철(58)
▲이화진(64)
▲조은구(58)
▲한재학(75)
▲황규백(69)
▲김광태(68)
▲김완기(66)
▲김진천(71)
▲민병유(55)
▲박지중(70)
▲오덕균(57)
▲이홍근(69)
▲정계영(66)
▲조정호(60)
▲홍사희(51)
▲김명진(65)
▲이영주(65)
▲이방숙(65)
▲이현우(65)
▲최구혜(65)
▲정명원(65)
▲김혜자(65)
▲김효순(65)
▲이해성(65)
▲윤규선(65)
▲한혜자(65)

研究所에 希望을 걸고 〈7〉

今世紀 최후의 鍊金術 유전공학

食糧부족·難治病·환경汚染 해결

제3의 産業革命 主導 확실

기초生命현상 究明·遺傳産物 實用化 위해 구슬땀

企劃 取材

「금세기 최후의 연금술」로 불리우는 遺傳工學은 최근에 와서야 보편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용어이지만 古代에도 경작식물의 잡종교배나 家畜의 교배에 의한 새로운 品種改良 등을 통해 인류의 오랜 발달과정에서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地球上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生物종류는 각각 고유한 기능의 遺傳子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전자를 분리하고 조작하는 기술은 생물이 생산하는 유용한 산물을 인류복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유전공학은 生命科學의 지식을 토대로 하는 생물공학의 핵심기술로서 인류의 당면한 과제인 식량부족, 자원고갈, 난치병, 환경오염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老化, 기억, 癌 등과 같은 생명현상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유전공학은 頭腦, 技術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기술이므로 제3의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첨단기술로 인식되고 있어, 선진각국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열띤 경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경향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전공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母校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학문발전과 산업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도모하고자 84년 3월 처음으로 유전공학 연구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85년 4월에는 연구소 운영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같은 해 7월 法定硏究所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87년부터 연구소 신축공사를 시작, 관악캠퍼스내에 지하 1층, 지상3층, 총 1천여평 규모의 現 연구소 건물을 완공해 작년 6월 開所式을 가졌었다.

同연구소는 최첨단 연구기자재를 갖춘 6개의 대형연구실과 8개의 공동실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염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 특수유전공학실험을 위한 항온, 항습 및 淵蕩시설, 放射性 및 위험물 폐기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액체 약품소독 및 멸균을 감안, 전 시설이 防水처리되어 있으며 P_3, P_4 밀폐실험실은 국제규격으로 2중 샤워시설과 멸균실 등을 갖추고 있어 AIDS등의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 유전공학연구소 실험실 일부

同연구소가 추구하는 목표는 첫째, 생명과학기초연구수행, 둘째, 유전공학응용연구수행, 셋째, 유전공학관련 우수연구인력양성, 네째, 産學協同연구수행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同연구소에서는 姜炫三소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기초연구부, 응용연구부, 자료부, 공동기기부, 행정부를 두어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첫째 목표인 기초연구수행을 위해 기초연구부를 분자유전학연구실, 세포생물학연구실, 생화학연구실로 구성하고 규명되지 않은 기초생명현상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응용연구부에서는 바이러스 및 분자종양학연구실, 미생물공학연구실, 식물분자생물학연구실로 나누어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 유전산물을 인류복지와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同연구소에서는 「세포생물을 유전자의 발현 및 조절」을 중점연구과제로 기초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분야는 생명과학의 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연구분야로서 ▲세포의 증식, 분화 및 노화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구조와 발현의 메카니즘, ▲암유전자 및 종양관련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 및 발현 메카니즘 ▲진핵세포유전자의 발현 및 조절에 연관된 인자의 상호작용메카니즘 ▲고등생물 유전자의 발현 및 조절메카니즘 ▲면역관계유전자의 구조 및 발현 조절메카니즘 ▲신경조절물질유전자의 구조 및 발현 조절메카니즘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유전공학 관련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해 현재 6명인 전임연구교수를 연내에 8명으로 충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박사후연구과정(Post-doc)도 도입할 예정에 있다. 또 현재 40여명정도인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앞으로는 倍정도로 인원을 늘려 교육, 고급인력배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이렇게 연구소에서 배출한 고급인력을 산업체에 지원, 아울러 産學協同을 도모하고 산업체연구인력을 매년 약간명씩 수용, 교육해 산업체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도 추진중에 있다.

그동안 同연구소에서는 85년부터 매년 교육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평균 25과제정도의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86년부터는 교육부와 한국분자생물학회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저명학자를 초청, 강연회와 유전공학연구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소의 발족이 84년에 있었다고 하나 첨단설비를 갖추고 정식으로 開所를 한지는 일천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체제정비작업과 연구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래에는 기초연구 수행의 결과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내놓기 위해 신기술 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전공학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두뇌집약적 기술로 우리나라와 같이 天然資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더없이 적절한 분야이며, 또한 아직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않아 독자적 기술개발로 조기토착화를 이룰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유전공학 발전추세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의 수준, 투자의 규모 및 지원체계는 선진각국에 비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同연구소의 경우도 우리나라 대학연구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연구비지원의 부족과 연구인력의 부족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遺傳工學이 아직 독자적학문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각 연관학문들의 情報교환과 상호협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동향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어느 대학보다 연구인력이 우수한 母校에서 유전공학에 관련된 각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유전공학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우리나라 유전공학계에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 유전공학은 분명 최첨단 생명공학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은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洪慶華 기자〉

눈 오는 날의 想念

同門수필

鄭 鎬 暻 〈56년 師大卒 · 隨筆家〉

몸이 시원찮아서 오늘은 직장엘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다. 날 새기가 무섭게 허둥지둥 현관 문을 빌고 나서야 하는 직장 생활을 30년 넘어 되풀이하다 보니 이젠 심신이 피곤하다 못해 괜한 외로움마저 느끼게 된다. 어디라고 뚜렷이 아픈데도 없이 그저 몸이 나른하고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이 탓일까.

아침부터 찌뿌둥하게 내려 앉아 있던 하늘이 10시가 지날 무렵 한두 송이 눈발이 날리더니 순식간에 함박눈으로 변하여 한길을 날쌔게 달리고 있던 수 많은 차들은 금시에 엉금엉금 기기 시작한다. 이 근래 보기 드문 함박눈이다. 아파트 뜰에 떨고 서 있던 나무들이나 주차장에 엎드려 있는 승용차들도 모두 포근한 겨울의 정을 담뿍 안은 채 정밀의 세계에 젖어 들고 있다. 이럴때, 살기에 바쁜 우리 도시인들도 잠깐 일손을 멈추고 창 밖을 내다보며 돈과 감투와 정치를 잊고 이 포근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안겨들고 싶지 않은가. 정이 몹시 그리워지는 날이다.

나는 낭낭이라는 이름의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딸 아이가 남대문 시장을 지나다가 강아지 장수 할아버지와 강아지들이 함께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도 안쓰러워서 그 중 제일 귀여운 놈을 한 마리 사 왔다고 한다. 값으로 보아 족보가 있는 품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 똥개는 물론 아니었다. 아무래도 귀엽고 재롱만 잘 부리면 그만이지 값이 문제되랴 싶었다. 이렇게 하여 3·4개월이 지나니 제법 제 몫을 하느라고 낯선 사람이 오면 왕왕 짖어 대는 것이다. 식구들이 밖으로 나갈 때나 돌아올 때면 졸랑졸랑 따라나와 배웅도 할 줄 알고, 깡충깡충 뛰면서 반가이 맞아주기도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의 불운이 그 녀석에게 닥쳐오고 말았다. 아파트에서는 원래 개를 기르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값비싼 애완견은 애당초에 짖지를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었다. 헌데, 이 녀석은 어찌나 큰 소리로 짖어 대는지 온 아파트가 쩡쩡 울릴 정도였다. 결국에는 반상회에서까지 말이 나오게 되어 생이별을 할 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 개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 짖어야 하는 것이 제 본분이요 본능이거늘, 주인에게 충실하려다가 도리어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성대 수술을 해 버릴까 했지만, 입만 벌리고 소리는 나지 않는 무성 영화가 될까 봐서 그 일도 그만 두었다. 며칠을 두고 고민하던 차에 마침내 반가운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 아파트 입구의 군고구마 장수가 데려다 기르겠다는 것이다. 텁수룩한 낯선 사람이 들고 들어오는 라면상자에 벌써 눈치를 챈 이 녀석은 눈알에 핏발이 서도록 짖어 대면서 저항하다가 결국 붙들려 상자 속으로 들어가면서 아내와 나를 번갈아 보며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은 안쓰러워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아내는 돌아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자식을 떠나보낸 아픔을 어루만지며 그 녀석의 안부를 생각하고 있다. 만나고 헤어짐의 아픔이 한 마리 말 못하는 강아지인들 무어 다르랴 싶었다. 눈이 소복소복 내려 쌓이는 오늘따라 낭낭이의 그림자가 내 곁을 맴돌고 있다.

名譽敎授 칼럼

국립自然史博物館도 없는 나라

金 熏 洙 〈49년 文理大卒 · 前 모교 自然大교수 · 한국자연보존협회장〉

일전에 日本의 宮澤 수상이 내한하여 韓日 頂上會談을 했었다. 그 주요 議題이자 쟁점은 대일 貿易逆調 문제였다. 이 역조의 원인은 일제부품을 수입해다가 조립하는 조립공업이 많기 때문이란다. 조립을 위한 시설도 일본에 의존한 것이다. 우리의 생산기반이 허약함을 뜻한다. 그동안 우리는 눈앞의 이득과 편의에 눈이 어두워 기초를 다지는 일을 소홀히 해 왔다. 어디 공업분야 뿐이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후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GNP만 높아진다고 해서, 골프장이 많아진다고 해서, 호화 해외관광에 들뜬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1987년에 서울에서 제16차 太平洋科學會議가 열렸었다. 그때 외국 학자들 중에는 서울에 國立自然史博物館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면서 『유감스럽게도 없는데 요』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 해에 올림픽경기가 한국에서 열렸을 때에도 인구가 1천만이나 되는 수도 서울에 국립 중앙자연사박물관도 없다니, 나는 창피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선진외국의 경우 어느 나라에 가든지 수도에 歷史博物館과 더불어 중구실을 하는 훌륭한 國立自然史博物館이 있고 지방에도 크고 작은 자연사박물관이 허다한데 비추어 우리의 실정은 후진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1959년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스소니안기구에 소속된 國立自然史博物館을 관람한 적이 있다. 그때는 한 단체의 일원으로서 그저 전시관에 관한 전시품의 신기롭고 다양함과 줄을 이어 관람하는 미국 내외의 각가지 人種들의 남녀노소들이 많음에 놀랐을 뿐인 피상적 관람을 하였었다.

1978·79년에는 기회가 있어 단독으로 이 박물관의 전시관을 찬찬히 보고, 硏究棟에 가서 필자와 같은 甲의 化石을 보고는 말의 진화과정을 실감하였다. 특히 학교 숙제라 하여 전시품을 열심히 관찰하면서 노트에 기록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목격하고 필자는 그들의 처지가 부러웠다. 연구동에 가보고는 이 박물관에서는 전시 기타 방법으로 사회교육에 힘쓰지만 오히려 학술적인 연구사업에 치중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곳의 연구분야는 人類學·植物學·昆蟲學·無脊椎動物學·鑛物學·古生物學·脊椎動物學등 7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필자가 발문한 甲殼類學分野(무척추동물학의 한 분과)에만도 9명의 저명한 전문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었다. 좀 오랜 통계지만, 이 자연사박물관에서는 1977년도에 전문학자 1백26명, 연구보조원·공동연구자·관련학자 1백89명이 일하고 있었다. 물론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학술지와 계몽지가 발간되고 있다. 필자는 1979~80년에 미국 로스앤젤리스에 있는 남가주대학에서 게류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재료는 상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필리핀 주변의 海産 게류 표본이었다. 이렇게 이 박물관은 관외 학자들에게도 연구재료를 제공한다. 원래 스미스소니안기구는 영국의 Gamies Smithson이 1826년에 미국에 기증한 재산과 그 遺志에 따라 미국 정부가 1846년에 「사람들 사이의 지식의 증진과 보급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국립자연사박물관은 3백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시설도 방대하여 1988년 현재 26개의 연구소를 가지며 여러가지 대중봉사부서도 있다. 이 박물관 전체 직원 약 2천명 중 교수 연구자가 2백59명이었다. 여기에는 가지각색의 채집품이 7천6백만점 또는 벌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영국 런던의 자연사박물관은 2백여년의 역사를 가지며, 그 목적은 「첫째 자연물의 채집품 속에 들어 있는 情報들을 발견하여 과학사회에 이용될 수 있게 하며, 둘째로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自然史에서 즐거움을 주고, 관심을 일으키고 교육을 하는」 것이다.

日本 東京의 국립과학박물관은 自然史분야가 위주이고, 상기 세 군데 자연사박물관에 비하면 역사가 일천하고 규모가 매우 적으나 연구사업은 중요시한다.

위의 예로써 알 수 있듯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은 한 국가의 필수적인 문화기반시설이며, 과학정신을 함양하는 만인의 교육장인 동시에 종합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우리 국가는 1990년 2월에 文化部장관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건설을 밝혔던 바를 실천하여 하루빨리 「國立自然史博物館도 없는 나라」를 면하도록 해야 한다.

"萬人의 교육장, 하루빨리 세워야"

健康교실

食생활改善

李 明 馥

〈39년 醫大卒·모교 명예교수·한국自然健康學會長·대림의원장〉

성인병 主因은 精製加工食品

無病長壽 하려면 自然食 해야

사람은 나이가 들어 몸이 衰弱해지면 健康에 관해서 많이 神經을 쓰게 되고 백歲의 長壽는 바라지 못할망정 여생을 病의 고통 없이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通情일것이다。

癌、高血壓、中風。糖尿病、慢性關節류마치스、慢性肝炎、肝硬化症。慢性腎臟炎、慢性氣管支喘息이다 하여 여러가지 難治나 不治의 病으로 고생하며 몇해씩 살고 있는것을 보면 본인이나 가족들의 심려와 고생은 말할것도 없고 보는사람으로도 비극이 아닐 수 없다。

文明과 科學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醫藥品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도 難治病、下治病 소위 成人病患者數는 점점 많아져가고있고 세계각국의 醫療費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가고 있다。

현재 高度로 발달된 科學도 인간의 生命科學에 관해서는 5%~15%정도밖에 解明하지 못하였고 85~95%는아직 未知의 상태이다。

매일같이 증가하고 있는 모든 成人病은 醫藥으로 치료될 수 있는 病이 아니다。

成人病의 근본원인은 文明國의 食品(유퍼마켙에서 팔고 있는 食品들)이 잘못되어 있는것이 원인이다。이에 관해서는 1977년에 발표된 「美國上院營養問題特別委員會 보고서」에 광범위하게 調査報告된바 있다。

제일 文明이 발달된 나라 美國의 食生活패턴을 살펴보면

1、肉類 과다섭취

2、흰설탕 과다섭취

3、穀物은 精製하고 가공하여 먹기좋고 消化吸收가 잘되게 제조하였으나 微量必須營養素가 거의 제거되어 버렸다。

4、野菜나 果實을 조금 먹는다。

5、精製鹽(흰소금) 과다섭취

6、심심풀이로 菓子類、아이스크림등 乳製品의 간식을 많이 먹고 있다。

7、여러가지 添加物(대부분이 有害)이 많이 첨가되어 있다。

이상의 食生活은 營養分이 극도로 偏食이 되고 일부의 營養素는 극도로 과다가 되고 많은 營養素는 부족 또는 결핍되게 되고、人體에 불필요하고 害가 되는 첨가물에 의해서 細胞의 生理에 變調가 생기게 되고 細胞와 組織은 萎縮、變質 退化현상이 일어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細胞의 退行性變質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成人病이다。이러한 성인병은 醫藥으로 치료가 안되고 服藥을 계속하면 부작용이 나서 또 다른 痼疾病만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슬픈 現象이 일어나고 있다。우리나라 사람들은 美國의 食生活이 신식이고 좋다고 해서 그 식생활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된다。식품製造業者들이 미국식식품을 製造하고 있으니(技術과 機械의 導入등) 精製加工食品을 사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가고 있다。

美國의 食生活은 나쁜 食事이다。人間을 破滅로 인도해가는 食事인 것이다。美國사람들은 이미 10여년전부터 成人病患者는 없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루속히 精神을 차려 食生活改善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근래 自然食이다、食生活개선이다。難治病(癌、動脈硬化、高血壓、糖尿病등) 치료의 식생활등에 관한 書籍이 많이 나오고 있다。사서 읽어보면 간단히 이해할수 있다。

이런 책들은 선진국의 自然食주의자、自然醫學연구가、自然治療法연구가들이 장기간의 경험에 의하여 얻은 成果를 기초로 하여 쓴 册들로서 인간의 食生活의 실제에 관해서 良心的으로 記錄된 것이고 귀중한 참고서가 되는 것이다。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痼疾病、難治病에서 해방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自然食을 하는 생활을 해야하니 따져볼것없이 穀)을 主食으로 하고 野菜、自家製된장、간장、고추장등을 재료로한 반찬등 여러가지 신선한 國產果實을 먹는 生活을 하는 것이다。

動物性食品은 일체 안먹는 것이 최고의 健康食이 되나 動物性食品을 꼭 먹고 싶으면 野菜量보다 少量으로 먹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자는 體質醫學(四象醫學、八象醫學)을 연구하고 있는데 체질의 학적으로 보면 체질상 害가 되는 식품의 禁食이 절대로 필요하고、우리들이 지금까지 각자의 體質을 모르니까 여러가지 식품을 먹고 있어 체질상 害가 되는 食品도 많이 먹게 되었던 것이다。이 害가 되는 식품이 痼疾病의 근본원인이 될수 있는 것이다。

食生活개선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80년초부터 菜食主義가 되는 사람이 1년에 1백만명씩이 되어 이미 1천만명이 넘었다고 한다。40-50년 후면 美國사람들은 전부 菜食主義가 되어버릴것 같다。그렇게 되면 美國에는 시중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사서 읽어보면 간단히 이해할수 있다。

이런 책들은 선진국의 自然食주의자、自然醫學연구가、自然治療法연구가들이 장기간의 경험에 의하여 얻은 成果를 기초로 하여 무조건 自然食에 관한 책을 사서 공부하고 하루 속히 자연식 食生活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 自然食이란 과연 무엇인가?

精製加工한 식품을 먹지않는다、玄穀(玄米、통밀가루、여러가지 雜

茶禮

—鄭 英 善

〈73년 家政大卒·한국茶文化研究所長〉

"茶를 마시면 정신을 맑게하고 마음을 온화하게 하는데 매력이 있다"고 하는 鄭동문.

趣味생활

차는 우리의 固有飲食

舊正床에도 올리는게 좋아

茶는 끓여서 마시는 즐거움 외에、찻물이 몸속에 들어가 몸을 건강하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또한 마음을 온화하게 하는데 그 매력이 있다。그래서인지 우리의 옛 선비들은 茶의 功과 德을 노래하였고 茶를 佳人이라 하였으며、茶를 마시면 못되어도 淸淨한 賢士는 된다고 하였다。차는 오래 마실수록 함부로 달루기엔 마땅치 않음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茶禮」의 뜻은 넓게는 神이나 사람에게 찰을 정성스레 끓여내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俗節이나 삭망、집안의 중대사가 있을 때 조상께 지내는 간단한 제사를 말한다。오늘날 넓은 의미의 茶禮는「다례」라 하고 후자의 경우는「차례」라 부른다。

간단한 제사인「차례」가 궁중이나 불가에서 행해지면「다례」라고 했던 것같다。

「茶禮」란 글자는 조선조 태종실록에서 부터 볼 수 있는데、중국사신들에게 차를 접대할 때 흔히「行茶禮」라고 하였다。그외에도 귀한 손님께 예의를 갖춰 차를 대접하고 함께 마시는 것도 茶禮라 하였으며 차로 간단히 제사지내는 왕실의 晝茶禮나 晝正床에도 귀한 손님께 예를 갖춰 차를 대접하고 함께 마시는 것도 茶禮라 하였으며 차로 간단히 제사지내는 왕실의 晝茶禮나 때 모사에 차와 술을 올리는 것도 茶禮라 하였으며 삼례때 다섯 차례 차와 술을 올린 것 등이 기록되어 있다。조선 중엽에는「家禮」가 일반 서민에게 정착되면서 제사에 茶를 써야 했는데、차가 없거나 나지 않는 지방에서는 茶대신에 밤가루를 쓰거나 떡차모양의 다식(茶食)을 만들어 젯상에 올려 놓았고、때로는 술이나 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불교와 더불어 쇠퇴하기 시작한 차문화는 임진왜란이후 더욱 심하였으나、문인과 승려들은 여전히 차를 즐겼고 차가 나는 지방에서는 면면히 음다풍속이 이어져 왔다。

차례음식은「앵두차사」「팥죽차사」란 말도있듯이 그 시절의 특색있는 음식으로 간단히 차리고、각 신위마다 술을 한잔씩만 올린 후 이어 차도 한잔씩 올려 정성을 다하고、차례가 끝나면 차도 따로 모아 후손들이 음복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찻잔은 크지 않아도 되나 받침이 있어야 하고、차는 녹차、황차를 우린 차탕이나 말차(가루차)를 점다하여 올리되 많이 붓지 않아도 될것 같다。

차 한잔 천천히 끓여 마실 생각을 하면서 어릴적 설을 기다리던 내모습을 떠올려 본다。그 돌담 모퉁이、

오늘날 설과 추석에 지내는 절기 차례는 茶祀라고도 하였는데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7세기 가야의 종묘제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삼국유사」에 의하면、일년에 다섯번 즉、정월 3일과 7일、5월5일、8월5일과 13일에 지내는 수로왕의 젯상에 떡·밥·차·과일등을 올렸는데 이로 보아 차가 당시의 토산품으로서 중요한 음식이었이나 귀족들이 손수 차를 끓여서 부처님께 올려 소망을 빌었다。조선시대에는 주자학이 정치 이념이 됨에 따라 신주를 봉안하고 관혼상제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조상신에게 찰을 올리게 되었다。조선 초 실록에는「大小제사에 술대신 茶를 쓰라는고 했고、왕실의 묘제사나 주다의(晝茶儀、주다례) 때 차탕(茶湯)을 올렸으며 삼례때 다섯 차례 차와 술을 같이 올린 것 등이 기록되어 있다。조선 중엽에는「家禮」가 일반 서민에게 정착되면서 제사에 茶를 써야 했는데、차가 없거나 나지 않는 지방에서는 茶대신에 밤가루를 쓰거나 떡차모양의 다식(茶食)을 만들어 젯상에 올려 놓았고、때로는 술이나 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불교와 더불어 쇠퇴하기 시작한 차문화는 임진왜란이후 더욱 심하였으나、문인과 승려들은 여전히 차를 즐겼고 차가 나는 지방에서는 면면히 음다풍속이 이어져 왔다。

차례음식은「앵두차사」「팥죽차사」란 말도있듯이 그 시절의 특색있는 음식으로 간단히 차리고、각 신위마다 술을 한잔씩만 올린 후 이어 차도 한잔씩 올려 정성을 다하고、차례가 끝나면 차도 따로 모아 후손들이 음복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찻잔은 크지 않아도 되나 받침이 있어야 하고、차는 녹차、황차를 우린 차탕이나 말차(가루차)를 점다하여 올리되 많이 붓지 않아도 될것 같다。

차 한잔 천천히 끓여 마실 생각을 하면서 어릴적 설을 기다리던 내모습을 떠올려 본다。그 돌담 모퉁이、그 길이 그립다。

新刊

■ 소송절차의 법률지식
－李英燮엮음 (42년 法大卒·前 대법원장)

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분쟁의 유형별로 나누어 실무에 관한 해설을 하고, 부득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경우의 의뢰방법과 법률구조제도의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訴狀의 작성방법, 헌법소원과 그 사례 등도 예시했다.〈484쪽. 8천원. 청림출판刊〉

■ 쌀과 문화
－李春寧著 (前 농대학장·모교名譽教授)

잡곡들의 略史와 벼(쌀)의 기원 및 전파를 설명하고, 쌀과 벼의 이용과 이에 관한 민속을 고찰한 연구서.〈150쪽. 2천5백원. 서울대학교출판부刊〉

■ 千寬宇 산문집
－千寬宇著 (49년 文理大卒·前 한국일보 상임고문)

千동문의 일주기를 맞아 그의 遺稿중에서 쉽게 읽힐 수있는 산문과 기행문들을 추려 펴냈다.〈263쪽. 4천원. 심설당刊〉

■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趙永植著 (50년 法大卒· 경희대 재단이사장·本會이사)

인간이 행복하고도 보람있게 살기위해 당위적인 要請사회를 만들자는 저자의 Oughtopia 사상을 피력. 나의 세계평화백서, 밝은사회운동의 이념과 철학등을 기술하고 있다.〈454쪽. 8천원. 예진출판刊〉

■ 한국의 古地圖
－李 燦著 (51년 師大卒·모교 教授)

30여년간 우리 고지도를 연구해온 저자의 연구성과를 집대성.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고지도 2백35점을 종류별 제작시기별로 분류, 컬러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422쪽. 20만원. 범우사刊〉

■ RNA 이야기
－金宇鎬譯 (56년 獸醫大卒·강원대 教授·本會이사)

생명체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지니는 한편 생명탄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RNA(리보핵산)의 모든 것을 개괄한 책으로 '생명의 시작에서 리보자임, 에이즈까지'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264쪽. 3천원. 전파과학사刊〉

■ 나의 만남 나의 인생
－李兌榮著 (57년 法大卒·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本會이사)

지난해 제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된 李동문이 평생을 불우한 여성과 인권회복을 위해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중 잊을 수 없는 만남의 사연들을 정리하여 묶었다.〈476쪽. 6천5백원. 정우사刊〉

■ 成長시대의 政府
－崔東奎著 (61년 法大卒· 극동정유 대표이사 사장)

우리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조직과 체계가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분석하면서 조직전개과정과 기능수행등에서 나타난 중앙집권적인 조직과 기능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조명.〈204쪽. 5천원. 한국경제신문사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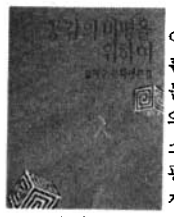
■ 畫家, 슬픈城主의 손
－張潤宇詩集 (62년 美大卒·성신여대教授·本會이사)

'詩와詩論社' 제정 제1회문학상 수상을 기념하여 펴낸 중견화가의 입곱번째 시집. 미술과 시에의 편력이 5개의 장에 걸쳐 그려짐.〈130쪽. 비매품. 인문당刊〉

■ 中民이론의 탐색
－韓相震著 (70년 文理大卒· 모교教授)

지난 80년대 사회과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돼 온 '변혁론'이 비현실적 급진화로 흐르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양극화'대신 '중심화'를 통해 사회변혁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아 '생산적 대화'의 물꼬를 열어보인 책.〈3백50쪽. 6천5백원. 문학과 지성사刊〉

■ 공감의 비평을 위하여
－金治洙著 (64년 文理大卒·문학평론가)



주로 80년대에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온 이문열등 작가들의 작품과 프랑스문학에 관한 평론에 이르기까지 '공감'이라는 전제로 평론을 시도했다.〈310쪽. 5천5백원. 문학과 지성사刊〉

■ 재미있는 考古學여행
－崔夢龍著 (68년 文理大卒· 모교教授·한국상고사 학회장)

어려운 고고학을 쉬운 문장으로 풀어쓴 고고학 안내서. 중요한 고고학현장 가운데 국내 7곳, 국외 20곳을 여행하듯이 사진, 그림등을 곁들여 소개했다.〈226쪽. 5천원. 학연문화사刊〉

■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洪思德著 (68년 文理大卒·정치평론가)

'2020년대의 한반도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이 방종과 혁명가적인 열정과 또는 창백한 지식인으로 전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낭비'로 정의하고 기성세대로서 그들에게 주는 충고를 담고있다.〈265쪽. 3천5백원. 미학사刊〉

■ Lotus 1-2-3
－韓相榮著 (72년 工大卒·모교教授)

기존 로터스 관련 서적들이 매뉴얼의 범주에 머무는 것을 보충하여 화일공유, DB기능, 매크로기능등 편리한 로터스 고급기능에 대해 알기쉬운 설명으로 엮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351쪽. 7천원. 동아출판사刊〉

■ 法은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 빛난다
－崔鍾庫著 (70년 法大卒· 모교教授)

法을 둘러싼 인간의 역사, 철학과 종교등의 문제를 수필과 時評 형식으로 기술했다. 특히 말미에 실린 '서울법대생論'에서는 우리 법학교육의 문제와 법률가의 사명에 관한 견해가 수록돼 있다.〈318쪽. 4천5백원. 철학과 현실사刊〉

公演

■ 바리톤 金丙基 독창회
－2월 14일 예술의전당

뉴욕 맨하탄音大를 거쳐 현재 전북대에 출강중인 김병기(75년 音大卒)동문의 귀국독창회. 베토벤 「메타스타지오에 의한 3곡의 이태리노래」, 로저 퀼터의 연가곡등이 연주된다. 피아노협연은 金德姬(71년 音大卒·중앙대출강) 동문.

■ 바리톤 黃聖秀 독창회
－2월 26일 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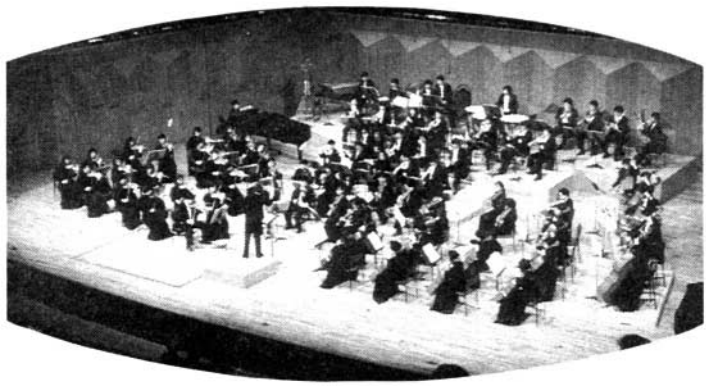
모교를 거쳐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국립음대를 졸업한 황성수(79년 音大卒·명지대출강) 동문의 독창회. 슈벨트·브람스·울프·라벨·스트라우스등 다양한 레퍼터리를 선보인다. 피아노 협연은 朱英牧(75년音大卒·전주대교수) 동문.

■ 우수신인피아니스트 데뷔 연주회
－2월 27일 예술의전당

향후 우리 음악계의 중추역할을 할 신인들의 첫무대.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공연에서는 모교音大 4학년 박경란·심선영·김유은·김희균·강주연·주희성양등이 슈만·리스트·베토벤·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한다.

■ '92교향악축제
－2월 26일 예술의전당

부천시립교향악단편으로 바흐의 「음악의 헌정」 브람스 「교향곡2번」 프로코피에프등이 오른다. 지휘는 林憲政(76년 音大卒. 모교敎授).



◇사진은 지난해 교향악축제 광경.

「동문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우리 同窓會報는 19만 同門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문을 위한, 동문의 대변지입니다.

동창회 운영 및 동창회보 제작에 동문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새로 마련될 동창회보「동문의 소리」난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아 래—

◇ 동창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모교발전을 위한 제언
◇ 동창회보에 관한 사항 ◇ 동문친목을 위한 일
◇ 기타 제언이나 의견등
— 보내실곳 :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학교동창회 회보편집부(FAX : 703-0755)
— 보내실때는 졸업년도·학과·성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母校 소식

94년 大入제도개선案 연구委 발족

學生選抜權 강화위한 獨自方案 강구해야

후기大 入試문제지 도난 계기 輿論 비등

94년도부터 바뀔 대학 입시제도 개선안중 모교의 입시제도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위원회가 구성됐다.

최근에 일어난 후기대 입시문제지 도난사건과 이로 인해 빚어진 입시연기와 이에 따른 학사일정의 차질등은 전대학이 획일적인 문제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의 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시켰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은 내신성적의 40%이상의 무반영과 언어·수리탐구 외국어의 3개영역으로 된 수학능력시험,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한 대학별고사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同 연구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택여부, 반영비율, 반영방법 그리고 대학별고사의 실시여부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개선안 자체가 신설될 대학별고사를 3개과목이내에서 결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실제 대학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영역시험도 실제로 국어·영어·수학에 가깝기때문에 대학본고사에서 과목을 중복해서 선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목결정이 너무 협소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매년 두차례씩이나 치러야 하는데다 시험장소도 대학보다 훨씬 수가 많은 대부분의 고교에서 시행할 예정이어서 시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 관계자와 교육전문가들은 94년부터 새로운 입시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대학별 자원관리방식(대학별 고사)으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학생선발을 대학에 완전 일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同 연구위원회는 이러한 학내외에 비등한 여론과 개선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기위해 바람직한 입시제도 정립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여는 등 금명간 최종안을 결정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2학년도 모교 入試지원창구.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약한 學科를 찾느라 눈치경쟁이 치열하다.

46회 卒業式 26일 거행

모교 제46회 졸업식이 이달 26일(水) 오후2시 관악캠퍼스 종합운동장에서 거행된다.

이날 식은 개식사에 이어 국민의례, 교부처장의 학사보고, 학위수여에 이어 총장 式辭, 졸업생 答辭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李基寧·牟壽美교수 부부

高陽郡 토지 2만6천坪 기증

모교 發展基金에 평생을 모교 醫大에서 봉직한 李基寧명예교수와 家政大 牟壽美교수(식품영양학) 부부는 지난해말 모교발전을 위해 경기도 고양군 소재 토지 2만6천평을 재단법인 서울大學校 발전기금에 기부하였다.

盆唐病院 세운다

5백병상 규모…98년 開院

모교는 盆唐 신도시에 5백병상(연건축면적 1만평) 규모의 病院(분당분원)을 세우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12월12일 열린 母校病院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는데, 새로 건립될 분당 分院은 분당 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약 3만4천평의 부지를 확보, 총 6백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98년 1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病院史」 편찬 同門협조 바라

모교 病院에서는 지난 1백년간 숨한 역사의 과정속에서 우리 民族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해온 국내및 세계무대에서의 病院의 위치와 역할을 재점검하기 위해 「病院史」를 편찬할 계획이다.

이 病院史에는 지난 舊韓末시대부터 日帝강점시대, 해방이후 6·25, 4·19, 신축병원시절등 1990년까지 1백여년의 역사가 집약되는 바,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료수집등에 同門들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美大 학장에 崔滿麟교수

美大 학장에 崔滿麟교수(58년 美大卒 조소과)가 지난달 임명됐다.

신임 崔학장은 경기고와 모교 미대 조소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美大 교무·학생담당 학장보와 미대부설 조형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教授요원 공채

20명 내외…서류 이달 29일 마감

모교는 각 분야별로 20명 내외의 교수요원을 공개채용한다.

이번에 채용하는 분야는 인문대 영문학과의 영어학, 독문학과의 19세기 독산문 독희곡, 언어학과의 역사·비교언어학, 서양사학과의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영국사, 철학과의 한국철학등이다.

또 사회대는 경제학과의 경제발전론, 자연대는 수학과의 위상수학 또는 수치해석 또는 대연해석학이며, 계산통계학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화학과는 유기화학분야이다.

가정대학은 식품영양학과의 영양학 식품화이며 공과대학은 산업공학과의 생산제조공학, 전기공학과의 고전압공학 또는 고전압방전공학, 토목공학과의 측량 및 원격탐사이다.

또 법과대학은 사법학과의 민법이며, 수의과대학은 수의학과의 수의미생물학, 약학대학은 약학과의 생물학, 음악대학은 성악과의 성악, 간호대학은 간호학과의 성인간호학, 환경대학원은 환경계획학과의 환경과학분야이며 유전공학연구소는 분자면역학과 분자신경생물학 등이다.

응모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서류제출은 모교 교무과로 2월29일까지 해야 하며, 결과는 개별통지한다.

제출서류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교 교무과(880-5008~9, 885-4740)로 문의하면 된다.

林玄鎭교수 1천만원 출연

「휘관장학기금」 2천만원으로 增額

사회대 신문학과에 재직했던 故임근수교수가 족이 신문학과 학생 장학금으로 출연한 「휘관장학기금」이 2천만원으로증액됐다.

이 휘관장학기금은 지난 79년에 6백만원, 94년에 4백만원, 12월16일 林玄鎭교수(사회대 사회학과) 가 1천만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기금총액은 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登錄 20일부터 3일간

新入生은 10~11일

92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등록이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국 각지역 농협과 조흥은행의 본·지점 및 출장소에서 실시된다.

한편 신입생 등록은 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대학원 신입생은 27일이다.

大學人事

△법대 부교수 朴世逸 ‖도서관 법학분관장 △공대 교수 △鄭秀鎭‖공대 무기재료공학과장 △자연대 조교수 조문섭‖대학원 지질화전공 주임 △농생대 교수 安建鏞‖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주임 △인문대 교수 元潤洙‖인문대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장 △환경대학원 부교수 金基浩‖환경대학원부설 환경계획연구소장 △미대 부교수 河東哲‖미대 교무담당학장보 △미대 조교수 張昊翼‖미대 학생담당학장보 △미대 부교수 韓雲晟‖미대 서양화과장 △미대 부교수 金 ‖미대 학생담당학장보 △공대 교수 李錫浩‖공대 컴퓨터공학과장